

# 국민의힘, 광주 지역구 5명 등 전국 25명 단수 공천

### 4·10 총선 후보 공천에 '속도'

#### 광주 동남갑 강현구

#### 동남을 박은식·서구갑 하현식

#### 광산갑 김정현·광산을 안태욱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광주를 비롯한 서울·제주 총선 공천 신청자 중 권영 세배현진·조은희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 등 25명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총선 서울 지역 '단수 공천' 명단에 용 산 대통령실 출신이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 면서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는 없다'는 시스템 공천 원칙이 일단 초반엔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위는 전날 면접 심사를 마친 서울의 49개 지 역구 중 19곳을 이날 단수 추천 지역으로 확정해 야 당 후보와 본선 준비에 일찌감치 나설 수 있도록 했 다.

나머지 30곳은 경선 또는 우선 추천(전략공천), 재공모 지역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박은식 비대위원(동남을)을 비롯해 강현구 전 광주건축사회장(동남갑), 하현식 전 광 주 서구를 당협위원장(서구갑), 김정현 전 광주시 당위원장(광산갑),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 사장(광산을) 등 5명이 단수 추천됐다. 불모지인 광주에서 유일하게 2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 해 후보 경선에 예상됐던 동남을의 경우 박 비대위 원이 단수 공천되면서 경선은 이뤄지지 않게 됐 다.

서울 송파갑에서 박 전 앵커는 석동현 전 민주평 동 사무처장, 안형환 전 의원 등과 경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단수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덧발'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 3구 지 역구에서는 조 의원(서초갑)과 배 의원(강파을)이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인접한 강동을의 이재영 전 의원도 단수 공천 대상이다.

의석 탈환을 노리는 '한강 벨트'에서는 4선의 권 의원(용산), 4선 출신인 나 전 의원(동작을)이 예 상대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게 됐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과 오신환 전 의원 (광진을), 장진영 서울시장 대변인(동작갑)도 단

수 공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북 지역에선 지역구를 옮긴 재선의 이용호 의 원(서대문갑)을 비롯해 김경진(동대문을) 전 의 원, 영입 인사인 전상범 전 부장판사(강북갑), 김 재섭 전 비대위원(도봉갑), 김선동 전 의원(도봉 을)이 단수 공천 대상이다.

서울 강서권은 지역구를 옮긴 태영호 의원(구로 을)을 비롯해 구상찬 전 의원(강서갑), 김일호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강서병), 호준석 전 YTN 앵커(구로갑),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관악 갑) 등이 명단에 들었다.

중로(최재형, 임연희, 손석기), 중·성동갑(최원 준, 윤희숙, 권오현, 이충한, 정영규), 중·성동을 (이혜훈, 하태경, 이영), 동대문갑(백금산, 김영 우, 김윤, 허용범, 여명, 고장균), 마포갑(신지호, 조정훈), 양천갑(조수진, 정미경, 정초신, 구자 룡), 영등포을(박민식, 박용찬), 서초을(박성중, 지성호, 신동욱), 강남을(박진, 이원모), 강남병 (유경준, 이인실, 이지영, 도여정, 신연희, 김창훈, 김민경), 강동갑(유시우, 윤희석, 전주혜) 등은 단 수 공천 대상 지역에서 빠졌다.

이들 가운데 중·성동을과 강남을의 경우 공천 신 청자의 지역구 재배치가 거론된다. 다른 지역도 경 선 또는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공천을 신청 한 대통령실 출신들이 한 명도 단수 추천에 이름 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승환(중랑을), 여명(동대문갑), 김성용(송파 병), 권오현(중·성동갑) 등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들은 민주당이 현역 의원으로 있어 비교적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공천 신청을 했으나, 단수 추천을 받 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원모 전 대통령 실 인사비서관은 '덧발'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가 '용산 출신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경기 지역 차출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서울 송 파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컷오프'됐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1기 내 각 출신 가운데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용산)을 제 외하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성동을),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서울 영등포을), 박진 전 외교부 장관(강남을) 모두 단수 공천 대상에 이 름을 올리지 못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영환(맨 왼쪽)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1차 단수추천 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 북에 해킹 당했다

### 지난해 11월 영국 방문 직전

### 대통령실 "개인 부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하순 영국·프랑 스 순방 직전 한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 한으로 추정되는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당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순방 시작 전 해당 건을 사전에 포착해 필요한 조 치들을 취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이 원 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해킹 공격은 상시화돼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해당 해킹 공격의 주체는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해킹된 정보에 윤 대통령의 영국 국 민 방문 중 진행된 일부 행사의 일정·시간표 등 관 련 내용과 대통령 메시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 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다음 주로 연기

국민의힘의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이 다음 주로 연기될 것으로 14 일 알려졌다. 국민의미래는 15일 중앙당 창당대 회를 열어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미뤘 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5-13 일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당 등록을 완료한 뒤 15일 중앙당 창당대회 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

에 기자들과 만나 "창당을 위한 행정 절차는 사실상 준비가 다 끝났지만, 지도부도 구성해야 하고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등 여러 실무적, 실질적 인 문제가 남아 있다"며 "그래서 15일 예정된 창당 식 자체를 연기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당직자도 통화에서 "15일 열려던 창당대회를 내주 후반부에 여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며 "조만 간 창당대회 공고를 다시 떠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창당대회가 일주일 정도 미뤄진 것은 지도부 인 선 문제가 남아 있는 데다,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주에 지역구 공천 신청자들에게 대한 면 접과 단수 공천 지역 발표가 이뤄지는 점도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미래는 창당 일정이 미뤄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15일 기준 각 정당 의석에 따라 지급하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尹,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박상욱 과기수석에 임명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 부위원장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두 사람의 배우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에게도 임명 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운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 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 상운 사회수석,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 보실 2차장, 왕윤중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 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아토피 초등학교, 장성으로 유학오세요

## 아토피 유학 설명회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 일시 :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15:00

## 우리 아이 아토피!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 피부과 전문의 및 한의원의 정기 진단 진료
- 통합의약의 입장에서 전문약사가 진행하는 숲이 보낸 처방전
- 숲해설가 및 산놀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숲속 놀이
- 놀이 전문가가 진행하는 황토길 산책 및 맨발걷기
- 전문한의사를 한방주치의 제도 아토피 제로
- 교육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 숲에서 이루어지는 1박2일 가족캠프

## 특별혜택 - 거주 펜션 지원 (선착순 30명)

축령산 자연속에서 신나게 놀아요  
아토피 관련 치유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후 특별교육(물놀이 숲놀이)

## 1급수 축령산 모암저수지

## 어린이 물놀이터, 숲놀이터

## 개장예정

전라남도 장성교육 지원청 (061) 390-6000